

2024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2024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2024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4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서구 구민의 노래

조선희 작사
윤영진 작곡

Moderato (경쾌하게)



1. 원 - 적 산 구 비마 다 치 솟 는 정 기
2. 새 - 톨 계 설 계하 는 내 일 이 있 어
3. 조 - 상 의 얼 이 있 어 전 통 을 이 어



높 - 다 란 하 늘 위 에 풍 요 를 열 고
누 - 리 엔 동 이 트 는 아 침 을 열 고
어 - 른 의 맥 을 따 라 가 훈 을 심 고



서 - 해 의 힘 찬 슬 기 야 망 을 - 꺾 는
이 - 마을 지 사 람 이 한 데 어 - 울 려
태 - 양 이 타 오 르 는 후 손 만 - 대 에



축 복 이 뿌 리 내 린 눈 부 신 터 전 아 -
즐 거 이 도 와 가 며 한 마 음 되 네 아 -
알 들 한 손 길 타 고 행 복 이 오 네 아 -



아 우 리 서 구 회 망 의 낙 원
아 우 리 서 구 사 랑 의 가 족
아 우 리 서 구 약 진 의 고 장



가 손 꾸 어 빛 내 가 머 다 저 나 가 세
대 잡 아 어 내 가 며 퍼 저 나 가 세
대 땅 의 불 밝 혀 서 키 워 나 가 세

서구의 심벌



[Symbol Mark]

본 심벌마크는 사람과 만남의 "장"을 연결해주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구의 상징물인 까치와 인천의 어질 仁자를 모티브로 하여,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뜻함과 동시에 마을주민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져 화합함으로써, 선진 서구의 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상을 표현하고 있음.

서구의 상징물

鳥



구조: **까치**

순결과 기쁨

花



구 화: **국화**

정조함과 고결함

木



구 목: **은행나무**

진실과 강인한 의지

獸



구 동물: **사슴**

평화와 사랑

발간사



“마음속에 담겨 있던 서구민의 이야기를 이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입니다.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집 『서곶지기들의 이야기』가 올해로 발간 2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보시나요?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이제 우리는 탐색보다는 검색, 글보다는 동영상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외부 자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본인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되돌아보거나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2024년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은 단순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탐구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어울리는 ‘잠자리’,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밀’, 또한 ‘눈’, ‘사과’와 같은 다채롭고 중의적인 시제를 준비하여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깊은 탐구를 요구하는 시제들인 만큼 글과 그림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이 전해졌고, 서구민들의 따스한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한 작품들은 단순한 창작물을 넘어, 서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작물이 보여준 상상력과 진지함은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백일장이 잠시나마 본인을 알아가고 추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수작품집에 담긴 이야기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심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이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나를 돌아보고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인천 서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백일장과 미술대회 수상자에게 축하를 그리고 수상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구민백일장 참가자 여러분의 열정적 창작활동 열매를 고이 모은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상상력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민백일장 시제였던 눈, 사과, 비밀, 잠자리는 나를 돌아보고, 추억을 떠올리며 상상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깃든 시는 웃음을 자아내고, 가슴 한 귀퉁이에 담아둔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낸 수필은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생각과 감수성을 담은 이 작품집이 어딘가 오래 자리 잡아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길, 읽는 이에게 작게나마 영감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민백일장과 미술대회 수상을 축하드리며,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백일장은 입상보다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문학인에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송한 땀방울이 맺힌 이마에 바람이 불듯, 늦지 않은 때에 소망하는 바를 이루길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입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인천 서구의 마음이 담긴 『제29회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시와 수필을 투고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뛰어난 작품성으로 깊은 감동을 안겨준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때문인지 문학을 향한 시선이 한층 더 뜨겁습니다. 시대와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 문학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기에 서구 구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번 작품집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서구는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시작했습니다. 갯골을 따라 늘어선 공장들이 사람을 불러들였고, 간척으로 형성된 들판에 미래를 심었습니다. 처음에 터를 잡았던 지역은 이제 원도심으로 불리고, 청라·루원·검단 신도시가 서구의 매력을 새롭게 알리고 있습니다. 63만을 넘어선 인구수는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빠른 변화와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거대한 건물과 압도적인 통계들 속에 숨어 있는 구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매년 펼쳐진 구민백일장에 바로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읽다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평범해서 특별해진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구가 품어온 따뜻한 마음, 구민백일장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고 글이 주는 힘을 믿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 승 환**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홍입니다.

<제29회 구민백일장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백일장 개최부터 우수작품집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균섭 서구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6년 처음 시작된 서구 구민백일장은 올해로 29회를 맞이했습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서구의 대표 백일장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권위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백일장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좋은 글 하나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역시 사람의 마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어떤 것보다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구민백일장에 참가하여 문학적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사람의 마음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멋진 글을 계속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법률, 회계, 제조업 등 많은 직업군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 중 글짓기는 꿈과 상상력, 나아가 인간의 품격을 부여하는 창조적 발원지로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설과 미술 등 창의력과 수준 높은 감정을 요구하는 예술만큼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백일장에서 멋진 글을 쓰며 인간의 창조성과 감정을 노래하고 인간다움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과 주민 여러분들이 백일장에 참여하고 서구 곳곳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저 역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9회 구민백일장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김 교 홍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를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우수작품
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일장과 미술대회, 그리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참
여해 주신 서구문화원장님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우리 서구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일상을 특별한 기억으로 승화시키고 서구의 문화
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우수작품집은 서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생하게
담아낸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될 것 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문화행사가 더욱 발전하여 서구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우
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검단의 국회의원 모경중입니다.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11월, 구민백일장 우수작품집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9월 펼쳐진 제29회 서구 구민백일장은 가을의 시작을 알렸던 행사로 구민 여러분의 풍부한 감성과 문장 실력을 유감없이 뽐낼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서구 구민백일장 참여와 수상의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자신감과 영감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서구 주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살피고 신경 쓰겠습니다.



끝으로 매해 서구의 문화 의식을 높여 오신 정군섭 서구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이 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모 경 중**

목차

CONTENTS

백일장 심사평	20
미술대회 심사평	22

백일장

장원

일반 인천 서구 연희동	유정열 그 따뜻한 위로연 덕분에	26
---------------------	-------------------	----

최우수상

어린이 인천한별초등학교 3학년 8반	강지민 잠자리	29
인천불로초등학교 3학년 1반	변지우 겨울눈	30
일반 인천 서구 가좌동	김혜영 사과	31
인천 서구 가정동	정재영 사과	32

우수상

어린이 인천가정초등학교 2학년 5반	이여울 사과는	33
인천청일초등학교 4학년 1반	이지율 눈	34
청소년 인천제물포중학교 3학년 2반	방지운 붉은 눈	35
인천아라중학교 1학년 5반	황진성 눈	36
일반 인천 서구 신현동	서민영 혼돈을 베어 먹다	38
인천 서구 원당동	이성희 눈	40
인천 서구 왕길동	이찬희 몰래한 사랑	42

장려상

어린이 인천가현초등학교 5학년 2반	송예승 걱정	45
인천신현북초등학교 4학년 1반	이지향 나의 비밀	46
인천서곶초등학교 3학년 3반	조아라 사과	47
일반 인천 서구 가좌동	김지성 그리운 외할머니의 눈물	48
인천 서구 원당동	윤성록 눈맞춤에 대한 기억	50
인천 서구 신현동	이하늘 비밀	53
인천 서구 가좌동	최유나 사과	55
인천 서구 가좌동	황인솔 무지개빛 사과	56

미술대회

대상

청라새싹유치원	조유라 하늘 놀이터	60
---------	------------	----

최우수상

해나라유치원	강지윤 비 오는 날	61
다운유치원	김소미 구름이	62
가현센트럴어린이집	임수아 하늘병원 요정	63

우수상

당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나연 노을진 하늘에서 사는 구름 강아지	64
재은유치원	박래아 가을의 하늘	65
국공립아라파라곤센트럴어린이집	박지우 지구야 내가 지켜줄게	66
청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민채 오빠와 나	67
국공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한서희 제주도의 무지개 하늘과 백록담	68
큰사랑유치원	한주아 아빠가 오는 길	69

2024 백일장 심사평

본 심사에서 시부문 일반부는 최우수상으로 두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영님의 '사과'는 가족사를 바탕으로 하여 인류까지 확장시키는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서술시 형식으로 진정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작품의 깊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소 산문화 경향이 있고, 시적 국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작품에 배어있는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재영님의 '사과'는 홍옥의 색깔에서 석양의 빛깔로 치환시키는 솜씨가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메타포를 운용하는 솜씨가 탁월하여 완성도의 측면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붉은 아버지의 그리움”이나 “봉지에 가득한 홍로의 빛깔처럼”으로 마무리 되는 시행은 구민 백일장의 빛나는 결과물로 남을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응모된 작품 수가 적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상징화된 눈이라는 독특한 작품이 발견되어 반갑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부에서는 어린이의 마음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 윤 희(김윤이)

응모작품의 수가 감소추세인 만큼 작품의 완성도도 편차가 많아 아쉬웠다. 일반적으로 수필은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기에 사실은 쓰기가 더 어려운 글이다. 일상적인 소재를 평이한 문체로 써 내려간 글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주어진 글감을 소화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사유를 확장시킨 글에 좋은 평가를 주었다.

초등부 산문의 경우 글쓰기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글들이 대부분이라 앞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글쓰기에 관한 관심과 습관을 기르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부는 응모 작품이 거의 없어 아쉬웠는데 입시와 경쟁에 치인 요즘 청소년들의 실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반부 산문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글로 녹여내고자 하는 열의는 있으나 적절한 어휘를 고르고 문장을 완성시키는 능력의 부재가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려버리는 경우가 보여 아쉽다. 좋은 글을 쓰고자 한다면 무조건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써볼 것을 권한다.

구민 백일장이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모자의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 문 숙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되는 물건이나 사건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경험을 끄집어 내기도 한다.

많은 작품을 읽으며 지난 날의 나를 소환해보았다. 수상에 걸맞는 수준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야기를 늘어놓는 식의 뉘즈리도 있었다. 체험에서 얻은 이야기를 여과없이 나열하다 보니 진부하거나 밋밋한 구성, 시제의 불분명한 설명적인 글로 마무리한 작품도 터러 눈에 띄었다. 선정된 당선작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인천문인협회 정 금 열(정이수)

2024 미술대회 심사평

하늘이라는 주제로 어린 친구들의 동심이 표현된 그림이 매우 좋았다. 색감과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에 더 점수를 주었고 어린이들의 그림은 다 비슷하고 친진함이 좋다.

인천미술협회 오 제 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기 대회가 많은 상황에서 하늘이라는 주제가 참신했다. 완성도 면에서 1차 심사하며 수상작을 선정하였고 2차 심사에는 적합, 독창 등의 표현을 면밀히 살피며 주요상을 배정하였다.

이번 대회 완성작을 보면서 아이들 눈으로 보는 하늘의 표현이 아주 순수하며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인천미술협회 이 승 경



백일장



그 따뜻한 위로엔 덕분에

서구 연희동
유정열



일반부

정든 교정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가까워진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정년까지 가자고 마음먹었지만 아쉽게도 정년을 3년 6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였다. 정년이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부족한 의지로 이루지 못해 지금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도 아내는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29년이나 다닌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퇴임 당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녔던 아들과 딸이 그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하며 손을 잡아주었던 장면이 잠깐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 20여 년 전의 일이다. 2학년 문과 여섯 반을 세 시간씩 수업을 맡았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과목이라 학생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었다. 학생들도 나의 열정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기로 결심한 듯 열심히 공부했다.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5분가량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시간을 학생들이 꼭 기다렸고 좋아했다.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소재 선정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 자유롭고 사랑이 감돌지만 학생들을 거의 통제하지 않는, 아니 통제를 하지 못하는 나의 수업 방식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잘못 할 때에는 따끔한 충고와 벌을 내릴 줄 알아야 하는데, 나는 뒤의 것을 거의 할 줄 모르는 절름발이 교사였던 것이다.

말썽 피우는 학생들이 어느 반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샅시간에 다른 반에서도 보이는 것이었다. 그동안 웃으면서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즐겁게 했던 수업을 부끄럽고 부끄럽게도 더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말이 빨라지고 입이 마르며 진땀이 나기도 했다. 아침이면 학교에 가

고 싶어서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이제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워졌다. 거기에 정신을 다 쏟다보니 밤에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다.

그런 날이 보름쯤 지나갔을 때다. 수업하러 어느 반에 들어갔더니 교탁 옆에 학생용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상했다. 수업을 시작하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반장인 남학생이 나오더니 나보고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이번 시간은 자신들이 준비한 재롱잔치를 감상하라고 하였다. 안 된다고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다음 시간에 두 배로 열심히 할 것이니 꼭 허락해 달라게 것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의자에 앉았다. 언제 그렇게 준비했을까. 학생 몇 명이 큰 비닐봉지에서 빵, 과자, 우유 등을 꺼내 나와 급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몇 명은 차례로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나도 앉아 있는 학생들과 박수를 보내 주었다. 흥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 부반장인 여학생이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나왔다. 교탁 앞에 서더니 봉투 안에 있는 편지지를 꺼내 읽기 시작하였다.

“선생님과 지난 3월에 처음 만난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철없는 저희들은 선생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그동안 많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특히 선생님 앞에서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의 체면도 있었다. 창피함도 있었다. 내 몸에 그렇게도 눈물과 콧물이 많은 줄 몰랐다. 의자를 옆으로 많이 돌리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눈물과 콧물을 나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 하나로 몇 번이나 닦아냈다. 나중에는 벽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꼭 젖

어버린 손수건을 얼굴에 그대로 댄 채 하염없이 흐느낄 따름이었다. 18세 학생들이 뻥히 보는 앞에서……

신기하다. 전염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해당되는 모양이다. 이 못난 선생님을 위한 학생들의 따뜻한 위로연은 그 반 한 교실에서만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반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 수업 분위기가 조금 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반의 학생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위로연 덕분에 그 한 해를 잘 넘길 수가 있었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 그때 그 학생들이 마흔을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나의 고통을 알았을까? 그 계획은 누가 처음 제안했을까? 돈은 어떻게 준비한 것일까? 그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때의 그 행사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명예퇴직을 한 뒤 나는 바로 주안에 있는 한 야학의 문을 두드렸다. 내년 2월이면 야학에서 봉사한 지 딱 7년이 된다. 그 학생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내 어찌 그들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해서 포근하게 안아주고 감싸준 그 마음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바란 그 태도를 나는 지금 야학에서 60~80대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애쓴다. 내가 받은 벅찬 선물을 나도 남들한테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 몹시 보고 싶다.

잠자리

인천한별초등학교
3학년 8반
강지민

윙윙거리는 너는 누구니?

아! 빨간 잠자리이구나.

너를 잡아보고 싶어,

잡으려고 잠자리체를 휘둘러,

달아나는 너는 저 하늘 위로 날아가네.

너는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니?

저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오면 나한테 말해줘.

왜냐고?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최우수상

어린이부

겨울눈

인천불로초등학교
3학년 1반
변지우



어린이부

가을아 가거라 가거라 하면
안 간다 안 간다 시끌시끌
가을과 겨울이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가을이 먼저 용기내서 말했어요.
겨울아 내가 먼저 떠난다고 하면서
노랑 빨강 눈물을 흘려요.
겨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보송보송 흘리는
하얀 눈물 겨울눈

사과

서구 가좌동
김혜영



일반부

한여름 밤
낮게 걸린 달이 어둡고 촛촛한
나무숲쯤에 닿더니
흰한 동그라미 반 쪼개 술술
눈물을 흘린다.
지금은 밤이라고
엄마는 폐렴으로 병원에 계신다고
우주와 현실을 넘나 들으며
겹치고 겹쳐 밤새 말을 쌓고 쌓아 보여도
젊어서는 할 말도 안 하던 아버지의 얇은 입술에서는 줄줄
부아나는 문장들이 다른 세상으로
달의 눈물을 나르고 있다.

“늙는 게 슬프다”
아버지 닮아 말 없는 동생은
간단하고 어렵게 글씨를 보내왔다.
월요일에도 아버지는 당신만의 힘겨운 세상을 지나오셨나 보다.

유혹에 겨워 깨물어 버린 사과 한 입이 없었던 날들이라면
그래서 허공이 무거워 허우적대는
인류를 시작시키지 않았더라면

울 아버지는 늘씬한 어깨 위에
어린 가장이라는 띠도 둘러매지 않고
아버지라는 두툼한 명함도 새겨 들고 있지 않고
달한테 열띤 눈물도 들키지 않고
늙음이라는 세월에 잡히지도 않고....
사과가 없었더라면...



사과

서구 가정동
정재영



일반부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지고 있는 홍옥 같은 석양을 보다가
“사과는 먹고 사냐?”
물으시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침밥 대신 사과 하나 먹으며
등교하던 딸이 시집을 갔는데도
사과철이 되면 물으셨다
가난한 딸이 안타까워

햇살과 비와 바람이
어린 열매를 달게 키워내듯
홀아비 되어 애지중지 키운
딸 하나, 딸 둘, 딸 셋,
남의 집으로 떠나보낸 뒤
꿈속에서도 애향단지였으리

타야 할 버스가 몇 대 지나니
석양이 지고 노을이 번졌다
늘 붉은 아버지의 그리움처럼
봉지에 가득한 홍로의 빛깔처럼



사과는

인천가정초등학교
2학년 5반
이여울



어린이부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꿀맛

아사삭 깨물면
입안 가득
과즙이 주르륵

가족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사과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빨간 사과

우당탕탕
동생이랑 싸워도
엄마에게 혼나
또르르 눈물이 나도

그래도
맛있는 사과

사과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정말 좋은 내 친구

내일 아침
또 만나자



눈

인천청일초등학교
4학년 1반
이지율



어린이부

나는 이불을
덮으면서
뒹굴뒹굴 거린다.
창문을 보니
새하얀 눈이 내린다.
밖으로 나가보니
눈이 붙었다.
눈아 너는 왜?
금방 사라지니?
내가 오래살 수 있도록
기도해볼게



붉은 눈

인천제물포중학교
3학년 2반
방지운



청소년부

뒹에 걸린 토끼는 비극적이다
그 위로 힘없이 쌓이는
눈마저도
흰색 수의처럼 느껴진다

토끼는 눈처럼,
여느 다른 것들처럼,
녹아 없어질 운명이다

토끼는 눈을 사랑한다
눈도 토끼를 사랑했나보다

나는 토끼일지도 모르겠다

눈

인천아라중학교
1학년 5반
황진성



청소년부

겨울의 한 어느 날이었다. 봄으로 넘어가기 전의 끝 겨울에 부는 부드러운 바람과 벌써 봄의 향기를 풍기는 듯한 작고 큰 나무들의 꽃봉오리들이 인상적인. 그들이 나를 반가워 했고, 난 그에 화답하듯 그들이 내준 길을 따라 걸었다. 얼마 안 가 눈이 소복히 내렸다. 웬지 옛날 기억이 났다. 내 친구와 함께 놀던 작년 겨울, 내 친구와 함께 하던 작년 겨울, 내 친구와 함께 웃던 작년 겨울, 이제는 없을 작년 겨울이 말이다.

작년 여름에서 가을 즈음의 이야기이다. 나는 지금 이곳으로의 이사를 거의 통보 받듯 전달 받았고, 이에 반항이나 슬픔이 거세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를 티 내지 않으려 그 친구와 여지껏처럼 함께했다. 그를 말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빨리 가라던 시간에게 내가 매달려 애원하고 있었다.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하루가 흐르고, 한 달이 지나 한 계절이 지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나에게 고작 하루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오지 말라던 잔인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그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의 날이었다. 우리는 밝게 만나 헤어졌다.

나는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다시 생각해보도 참 신기하게 나를 위로하듯 눈이 흘날렸다. 13년간의 애타한 우정에 강제로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이후, 내가 그 친구를 한창 그리워하고 있을 즈음에, 그 친구도 내 이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헤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리움과 더불어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무쳤고, 큰 고통을 느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이 인도해준 길의 끝자락에 도달했다. 이사 온 지 어느새 1년이 다 된, 내 새로운 집이었다. 나는 그때 겪은 고통을 뒤로 새롭게 그 마침표 뒤를 써보기로 했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적어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이면, 그 마침표 이전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읽어, 그 친구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기도 해 본다.

혼돈을 베어 먹다

서구 신현동
서민영



일반부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금단의 사과를 따 먹었다. 흔히 상상하는 새빨갳고 탐스러운 사과가 아니라 검붉은 빛을 띤 사과였다. 그 불길해 보이는 사과는 ‘데미안’이란 책 속에 열려 있었다.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이 실제 도둑질로 왜곡되는 동안 어떤 변명이나 방어도 하지 못하는 싱클레어는 나 자신이었다. 데미안은 사과를 훔쳤든 훔치지 않았든 일단 한입 베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이었다.

첫 번째 사과를 아삭 깨물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새콤했다. 정신을 아찔하게 하는 맛이였다. 아벨을 죽인 카인이 멋있다니. 선악을 나누었던 확고부동한 선이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에초에 선과 악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흘러나왔다. 내 사유 속에 ‘왜’라는 물음표가 스며들자, 카인의 표식이 내 이마 위에 새겨졌다.

나는 마흔이 넘어서야 표식의 위협을 감지했다. 내가 추구했던 표식은 독창성이 아니라 아집으로 변질될 수 있었다. 나는 가족들이 내 취향을 따라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특히 쇼핑할 때 그 사실이 잘 드러났다. 나는 딸들이 직접 고른 옷이나 물건에 대해 나의 취향을 잣대 삼아 평가내렸다. 어느 날 고학년이 된 첫째 아이가 말했다.

“엄마 스타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때 나는 딸의 이마에 새겨진 카인의 표식을 발견했다. 딸의 표식은 내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두 번째 사과의 맛은 쓰면서도 시원했다. 회개하는 도둑보다 반성하지 않는 도둑이 멋지다니. 남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개척하고 싶다는 반항심이 내 속에 심어졌다. 자신도 모르는 새 반항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났나 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사그라들 때쯤 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은 다 달랐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었다. 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제목이 꼭 인상적이어야 하나? 독자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글이 꼭 재밌어야 해? 갈등 없이 평화로운 내용은 왜 안 되는 거야?

일 년 남짓 글쓰기 수업을 경험하고 나니 알겠다. 나는 기존의 질서에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먹어보기도 전에 먹기 싫어하는 편식쟁이의 반항이었을 뿐이었다. 반항으로 개혁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했다.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세 번째 사과는 아보카도의 맛과 비슷했다. 딱히 무슨 맛인지 형용할 수는 없지만 미묘하게 느껴지는 느끼한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선과 악을 다 허용하는 신인 아프락사스라니. 나의 유년기는 완전히 붕괴했다. 선악을 구분하는 선은 인간이 만든 허구라는 것을, 인간과 세계의 다양성만큼 선악의 구별 또한 다양하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혼돈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직장인, 아내, 며느리 그리고 엄마의 자리를 지나면서 때때로 나는 유년의 세계가 그림다. 벌과 상이 있을망정 흔들림 없이 분명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스스로가 내린 결정에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워서다. 그리고보니 여태 나는 데미안이 건네준 사과를 소화하는 중이었나 보다. 모든 맛을 다 품은 그것을 맛보느라 흔들리고 흔들린다. 혼자서 버티어야 하기에 외로움에 잠식당하는 때도 있다. 인간인 이상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위안에 그나마 기대본다.

눈

서구 원당동
이성희



일반부

“아니, 왜 또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고 읽는 거야! 할아버지 같다고 그러지 말랬지!”

요즘 남편은 부쩍 작은 책자를 보거나 핸드폰 글씨를 읽을 때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고 들여다본다. 안경을 쓰지 않는 나는 왜 잘 보이고 쓰는 안경을 가까운 작은 글씨를 읽을 때는 벗어야 하는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는 건,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다.

나이 지긋하신 간부들 회의 자리에 회의자료를 배포하니,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안경 쓴 분들은 일제히 안경을 올리고 자료를 읽는 모습을 보고, 안경을 올리는 것은 ‘나 나이들었소’하는 것 같은 인상이 너무 강하게 박혀버린 것이다.

사실,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았던 나도 요즘은 가끔 아이들 과자를 고를 때 식품첨가물을 확인하려고 해도 너무 작은 글씨는 보기 힘들어 예전에 TV 광고에서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서 읽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이렇게 작게 써놓는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이건 내 눈 탓이 아니라 너무 작은 글씨 탓이라고……

이처럼 요즘 우리 부부가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지표처럼 되어버린 이 현상을 난 애써 아닌 척하려는 것은, 예전에 어른들한테 들던 눈의 노화를, 곧 나도 노화의 증상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발버둥이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때가 되면 나에게도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웬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남편이 안경을 올리고 글 읽는 것에 잔소리하고, 내가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닌 작은 글씨 탓이다.

사실을 인정하고 서글퍼하는 내 모습보다는, 이를 애써 부인하고 큰소리치는 내 모습이 더 활기차고 나 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몰래한 사랑

서구 왕길동
이찬희



일반부

남들은 일찍들 시작하는 첫사랑을 늦은 나이 서른 두살에 한 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친한 친구들도 그랬다. 남들이 보기엔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어버린 나이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내 성격상 나의 첫사랑이 비밀 연애가 된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했다. 게다가 너무나 엄하셨던 아빠도 한 이유였다. 그래서 실패로 끝난 첫사랑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나의 모든 연애사는 비밀에 부쳐졌다.

나의 마지막 연애 상대였던 남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하물며 우리 가족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다. 난 남편을 단지 같은 교회 성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어느 날 내가 여자로 눈에 들어오더라.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자는 제안도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였다. 같은 교회 성도끼리의 친목도모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도 남편이 내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리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따로 만남을 처음 가진 그 날에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마음이 깊어져 가고 있을 때 내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설레임보다 가족들이나 교회 지인들이 우리의 비밀 연애를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편하게 연애만 하고 싶었던 나와는 달리 가족들, 특히 엄마는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나의 결혼을 늘 걱정하고 있던 터였기에 연애가 공개되면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 나도, 그 당시의 남자친구였던 남편도 서로 너무 불편할 걸 알기에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연애는 공개가 아닌 비밀로 계속되었다. 나의 결혼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늦은 나이 서른 두살에 한 첫사랑 이후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서른다섯이라는, 결혼 적령기를 뛰어넘다 못해 이리다 우리 딸이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실만한 나이였으니 말이다.

그렇게 계속된 남편과의 비밀 연애 중 제일 힘들었던 건 일주일에 한번 온가족과 함께하는 교회 예배 때였다. 사귀고 있다는 걸 티 낼 수 없었기에 교회에서 만나도 서로 데면데면 해야만 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그 와중에 지나가면서 살짝 내 손을 잡던 남편의 모습이었다. 나이를 먹은 후에 하는 연애여도 애뜻함과 절절함은 젊은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였다.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당연히 함께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는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때는 우리가 비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잊혀지기도 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당일치기도 아니고 1박 2일도 아닌, 2박 3일의 긴 시간을 둘러댈 핑계가 필요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의 비밀 연애 동안 나는 태어나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것 같다. 물론, 나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자기 위로를 삼으며 말이다. 당시 비밀 연애를 숨기기 위해 둘러댈 핑계가 필요하다 보니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우리의 비밀스러운 연애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게 되었다. 친구 역시 그때까지 결혼은 생각조차 안 하는 비혼주의자였기에 우리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비밀을 공유한 그 친구의 협조 덕분에 2박 3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버킷리스트에서 지워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비밀 연애가 들통난 건 남편과 만남을 가진 지 일 년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아빠께서 거실로 부르셨는데 엄마와 나란히 앉아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비밀이 들통났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집에 늦게 귀가하고 친구와의 여행이 잦아지면서 내가 연애중이

라는 사실은 눈치채실 수 있으셨겠다 싶어도 그 상대가 남편이라는 걸 아셨다는 게 놀라웠다. 한편으론 이래서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다행히 부모님 모두 교회에서의 남편을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으로 좋게 보신 터라 만남을 알게 되신 후로 우리의 결혼까지는 속전속결이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품 안의 딸을 떠나보내려니 아쉬워하던 엄마와 결혼 전 내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면서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그간의 비밀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는데 엄마는 이미 우리의 비밀 연애를 다 알고 계셨다 하셨다. 불같은 성격의 아빠를 아시기에 모른 척 하셨을 뿐이란다. 그러면서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 과거 이야기들도 들려주셨다. 늘 가족과 집 안일에만 최선을 다해 산 엄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날이자 처음으로 엄마와 나만의 비밀이 생긴 날이었다.



걱정

인천가현초등학교
5학년 2반
송예승



어린이부

가을이라는 계절이 다가오면 어디선가 나타났던 잠자리

내 머리 위를 요란하게 날아다니던 잠자리

학교 정문 앞 윙윙 거리던 잠자리

가을 하늘을 거침없이 날아다니던 잠자리

혼자서도 잘만 날아다닌다

나도 잠자리가 되고 싶어

걱정조차 없는 잠자리



나의 비밀

인천신현북초등학교
4학년 1반
이지향



어린이부

나는 비밀이에요. 아주 깊은 비밀. 그래서 다들 내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왜냐면 나한테는 웃긴 비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차 타고 놀러 가는 도중 내가 방귀를 끼었는데 내가 아니고 아빠가 끼었다고 가리키거나 아니면 나 아니라면서 화내는 연기를 한다면가 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있었다던가 등등이다. 물론 재미있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엄마 아빤...아니다. 더 말하면 혼날 것 같다. 내 웃긴 비밀아 안뇽^^

사과

인천서곶초등학교
3학년 3반
조아라



어린이부

사과는 아삭아삭
사과를 먹으면 예뻐진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사과를 좋아하나?
나도 사과를 좋아해서
예뻐졌나 보다.
심술궂은 친구들아
사과 많이 먹고
몸도 마음도 예뻐지자.

그리운 외할머니의 눈물

서구 가좌동
김지성



일반부

30년 전, 당시 초등학생이던 내가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다친 적이 있었다.

그저 천방지축 어린 나이에 까불고 놀다가 다친... 집 뒷편에서 밭일 마치고 오신 외할머니는 놀라신 모습으로 뛰어오고...넘어진 상태에서 바라본 외할머니의 모습은 정말로 슬픔 그 자체였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신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눈물을 본 나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할머니도 당신이 눈물 흘림에 살짝은 멧쩍으셨는지 “네 엄마에겐 비밀”이라며 신신당부하셨다.

그렇게 큰 손주인 나와 할머니 사이에는 서로 간의 비밀이 생긴...

29년이 지난 지난해 이맘때,

할머니가 영원한 안녕을 고하시고 장례를 치루는 기간동안 할머니와의 추억을 곱씹다 보니 가장 생각나는 일이 94년 여름방학 때 봤던 할머니의 눈물이었다. 추억의 한 컷, 한 컷이 지나가는데 유독 이 기억이 머릿속과 마음속을 기억하게 하며 다가왔다.

그 때 할머니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때는 어리디 어린 열 한 살이라 할머니가 왜 우시는지 크게 생각지 못 했지만 할머니와의 작별의 장소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손주가 다친 모습에 흘리신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본인을 자책하며 돌보지 못함의 자책의 눈물이었을까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그때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이번 주,

외가 식구들은 한 데 모여 제사를 지내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회상을 했다.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의 우리 엄마와의 추억 한 페이지... 손자, 손녀들이 기억하는 우리 할머니와의 추억 한 페이지...

다시금 할머니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생각나는 건 30년전 그 기억,

그 때 알 수 있었다.

30년 전 할머니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걸...걱정, 자책감을 다 보듬는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걸...

그것을 깨닫고 나니 더욱 사무치게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그 어린 손주는 30년이 지나서야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는데... 이제 눈물의 의미를 알았다고 재잘재잘 전해 드릴 할머니는 이제 없으니

그리운 할머니의 눈물...

떠난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지 안타깝고 후회되고

눈물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다.

가족 간의 눈물은 사랑이라는 매개로 이뤄진 소중한 기억해야 하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늘 난 우리 할머니의 눈물이 그림다.

눈맞춤에 대한 기억

서구 원당동
윤성록



일반부

스무 살 어느 봄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해 본다.

대학을 갓 경험하는 신입생들은 그렇게도 술도 많이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나 또한 일반적인 신입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은 연락처조차 없지만, 그 시절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인 마냥 매일 시간을 같이하던 친구들이 있었다. 오랜 친구들이 아닌 대학에 입학하고 알게 된 친구들이었는데 어쩌면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한참 술잔이 오고 갔었을 때였다. 신입생들 가운데 주량이 제일 세다고 자부했던 네 명이었다. 1차였을지, 2차였을지 잘 모르겠다.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기억은 꽤나 모두가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우리는 농담을 즐기며 심각함을 멀리하던 젊은이였다. 아마 그때는 술기운이 너도나도 올라온 상태였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너는 왜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지 않냐?”

갑작스럽게 한 친구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었기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얼버무리면서 눈빛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말없는 질문을 던졌다. 처음 질문을 던진 친구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모르겠다는 반응이자 그 친구가 입을 재차 열었다.

“지금도 봐봐. 저 녀석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 입만 보잖아.”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며, 그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과 눈이 마주치자 생경한 느낌이 들었다. 이내 나는 눈을 내렸다. 갑자기 친구들은 왈카지껄해졌다. 세 명의 친구들은 한참이나 나를 분석하고 해체해 나갔다. 심리분석일지 단순한 심문일지 모를 공격이 한참 동안 이어졌었다.

소위 눈을 마주치는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고 한다. 자신감이 결여되었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고 한다.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술기운이 확 달아난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짧은 인생을 살펴본다. 나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꽤나 괜찮은 모습이다. 집이 가난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었다는 것밖에 어떤 결핍도 찾기가 어렵다.

공부도 꽤나 잘했던 우등생이었다. 축구나 농구 같은 단체 구기 운동은 반대표를 빠짐없이 했었다. 조약스러울지라도 기타도 다룰 줄 아는 재주꾼이었다. 반장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도 큰 학생이었다.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친구로 생각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과거의 기억이 배제된 현재의 모습이 본질에 더 가까울지도 모를 것이다. 그때의 나는 한참이나 고민에 고민을 더했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과 나약함을 결부시키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은 시선을 회피한다는 명제는 꽤나 타당하다. 그때의 술자리를 파하고,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씨름했었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게 된 것이다.

비밀

서구 신현동
이하늘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들은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정의로도 확장되고, 자존감의 형성은 단순한 사실들의 열거와는 다른 주관적인 해석이 더해진다는 생각도 더해졌다.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보다는 지금 40대의 나의 마음은 꽤나 단단하다. 스무 살의 어느 봄날에 가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었을까? 그 시절의 고민의 흔적들이 지금의 단단함에 한몫을 했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깊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 20대의 시선을 회피하던 것은 내 모습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였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스럽다.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 조금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말이다.

또다시 20년이 지난 60대의 나는 더욱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것이다. 스무 살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좀 더 유연하고 멋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어쩌면 나는 20년 뒤, 스무 살의 술자리와 지금의 글짓기의 경험을 엮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진 글을 쓰고 있을런지 모르겠다.



일반부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 보았다.

그녀는 온종일 핸드폰을 들락날락거리고
거실지정석에 앉아 티비를 본다.

그녀의 대화상대는 오직
모니터 속 낯선 이

우리는 온종일 핸드폰을 이곳저곳 만지며
각자 침대에 누워 딴짓을 한다.

그녀의 접촉 상대는 오직
자신의 지문이 새겨진 가족 위

그녀의 말은
가시마냥 날카롭기만 한데

그것은
어린 소녀가
여생을 살아간 방식이었을까?

젊은 여인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을까?



늙은 그녀가
사랑을 말하는 방식이었을까?

효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늘도 그녀의 하루를 외롭게 만든다.

그녀는 그렇게 늙어간다.

마치 매일 앉아 닳은
거실 쇼파 가죽 처럼...



사과

서구 가좌동
최유나



일반부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문다. 불규칙한 톱니 모양으로 이루어진 어설픈
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물기 어린 과육이 반짝인다. 눈물처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슬퍼 보인다. 거칠고 아팠나.

사과는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귀찮지만, 잘라본다. 바르고 곧게 잘린 조각 조각의
사과들을 가지런히 놓는다. 반달 모양의 조각들은 꼭 웃는 얼굴을 닮았다.

네가 웃는 모습도 그렇게나 예뻐지.
그 모습에 나도 웃는다.

무지개빛 사과

서구 가좌동
황인술



일반부

궁금하다. 당신이 보는 사과는 어떤 색인가? 나의 경우, 풋내를 풍기며 상큼한 맛의 풋사과는 파란색이고, 무르익어 달콤한 사과는 익어갈수록 짙어지는 보라색이다.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사과는 빨간색이지”라며 뻔한 말을 물으며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가 보는 사과의 색은 모두 다르다. 어떤 이는 선천적으로 색을 인식하는 세포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사과의 색이 회색으로, 노란색 또는 녹색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과가 빨간색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사과뿐만이 아니다. 약 80억 명의 단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들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집, 지구 안에서 많은 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게 칭해지고, 그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들은 다수의 시선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고, 나아가 기준이 생기며, 개념들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네 개의 선이 직각으로 이어진 것은 ‘네모’, 뚜렷한 이목구비와 날씬한 외형을 가진 사람에게 ‘예쁘다’라고 평가하고, 30도가 넘어가는 날씨를 ‘무더위’라고 칭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과연 확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 안에는 시각 시스템이 전혀 없는 바다 생물도 존재하며, 사물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는 곤충도 있다. 또한, 과거부터 각 국가별로 미의 기준이 다르며, 30도의 온도가 평균적이고 연중 내내 열대 기후를 가진 지역들도 존재한다.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 한 톨과도 같이 작은 우리의 집, 그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고 다양한 자연과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는 그 무엇보다 경이롭고 감사한 곳이다.

이토록 경이로운 지구 안에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보편적인 믿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갇힌 집오리처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날개짓을 잊어버린 편향된 시선일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모습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길임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력의 과정이 나와 당신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펼치는 하나의 날개짓이 된다는 것이다.

세상 안의 다수의 시선으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각과 기준으로 펼쳐내는 자유로운 날개짓이 쌓이면, 우리는 반드시 날아올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끝으로, 당신에게 오늘의 사과는 무슨 색인가?

미술대회



하늘 놀이터

청라새싹유치원
조유라



비 오는 날

해나라유치원
강지윤



구름이

다운유치원
김소미



하늘병원 요정

가현센터어린이집
임수아



노을진 하늘에서 사는 구름 강아지

당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나연



가을의 하늘

재은유치원
박레아



지구야 내가 지켜줄게

국공립아라파라곤센트럴어린이집
박지우



오빠와 나

청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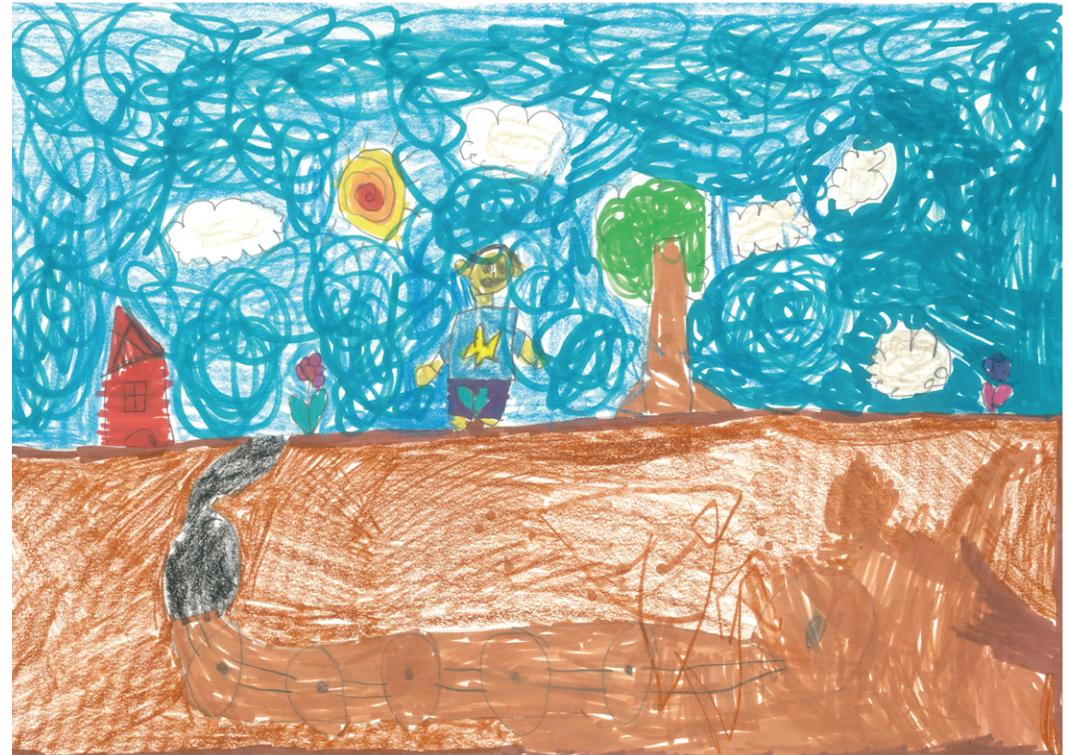
제주도의 무지개 하늘과 백록담

국공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한서희



아빠가 오는 길

큰사랑 유치원
한주아



2024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9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발행인 정군섭

기획 서덕현

편집 조혜린, 박현진, 정다희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cc.kr

인쇄 · 출판 로컬웨이브인천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작품집은 2차 저작물 활용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